

## 국제 양돈 수의학회 (IPVS) 참관기 (미국 아이오와 에임스)

박 남 응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교수

FIFA 월드컵 트로피를 형상화 하였다는 2002 FIFA world cup KOREA/JAPAN 공식 엠블럼기가 전국 도처에 휘날리고 있을 무렵 나와 내 실험실 대학원생 일행 4명은 제 17차 IPVS 학술대회 참석차 5월 29일 미국 여행길에 올랐다. 6월 2일부터 5일까지 아이오와 수의과대학이 있는 에임스(Ames)라는 도시의 아이오와 스테이트 센터에서 열리는 IPVS 학회는 International Pig Veterinary Society의 약자로서 국제 양돈수의학회로 통용된다. 이번 대회는 미국 양돈 수의사회, 아이오와 대학, 국립 양돈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다섯번째 미국행이고 아이오와 수의대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 IPVS의 역대 개최지와 방콕

IPVS의 제 1차 창립대회는 1969년(6. 23 - 29) 영국 낭만의 도시 케임브릿지에서 양돈위생과 돼지 질병에 대한 최신 지견과 정보를 교환한다는 목적으로 최초 열리기 시작했다. 그 당시 대회장은 Dr. Storie-Pugh였다. 3년 후인

1972년(5. 23.-26)에 독일 하노버에서 2차 대회가 열렸다. 그 후 매 2년마다 74년 파리 리옹, 76년에 미국 아이오와 에임즈, 78년에 유고 자그레브, 80년 덴마크 코펜하겐, 82년 멕시코, 84년 벨기에 겐트, 86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88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90년 스위스 로잔느, 92년 네덜란드 헤이그, 94년 태국 방콕, 96년 이탈리아 볼로냐, 98년 영국 버밍햄, 2000년 호주 멜번, 2002년에 다시 이곳 아이오와 에임즈에서 열렸고 2004년 차기 대회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다.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개최지를 나열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이 만큼 국력이 신장했으니 한번쯤은 개최할 때도 되었지 않을까 생각해서이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1994년 6월 26일부터 30일 까지 태국 추라롱콘 수의과대학 주관으로 대회를 훌륭하게 치른 적이 있다. 그 당시 학장 송크람씨가 대회장이었는데 내 기억에 회원들에게 좋은 서비스와 관광자원을 동원한 인상적인 대회를 만들어 주었다. 그 당시 발표논문만 해도 538편에 42개국에서 참석했었다. 그 때에는 친절하게 매일 IPVS

News letter를 배포하면서 매일 매일 여러 가지 잡다한 소식을 알렸는데 그 당시에도 미국에서 월드컵이 있어서 매일 월드컵 리포트로 큰 지면을 할애해 시합결과와 다음날 TV 채널을 소개해 주곤 했었다. 그러나 금년 미국 학회 장소에서는 월드컵 소식을 가까이 접할 수 없어서 사뭇 대조적이었다.

### 기부금으로 지어진 컨벤션 센터와 분위기

학회 발표장은 Scheman building을 중심으로 동쪽의 Stephens Auditorium, Fisher Theater에 분산되어 있었으며, 포스터 전시장인 Hilton Coliseum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들 건물들은 이미 작고한 사람들의 기부금에 의해 오래전에 지어진 것이 틀림없다. 그들은 이름을 남기면서 올바른 사람값을 한 것이다.

Keynote Presentation, 소위 특강이란 것은 항상 오전 8:00시부터 Stephens Auditorium에서 50분간 이루어졌으며, 이후 또 다른 특강인 Featured Presentation은 관심있는 주제를 찾아 참석자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시간 배려가 되어 있었다. Stephens Auditorium은 2000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커다란 강당이었으며 발표장은 매우 잘 정돈 되어 있었다. 이번 IPVS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발표장 입구에 스페인어의 통역기를 대여해주는 사람과 발표장 뒷편에서는 매 연제마다 열심히 스페인어로 통역하는 사람이었다. 스페인어의 통역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다수의 참가자들에게는 발표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발표장 맨 뒷자리에 격리되지 않은 공간에서의 통역은 뒷자리에 앉은 회원들에게는 발표내용을 경청하는데 방해 요인이었다.

대한

### 학회발표 주제와 발표 매너

2002년도 IPVS 학술 프로그램(scientific program) 주제는 구두 발표 연제로 Circovirus, PRRS, 돼지 인플루엔자바이러스(SIV), 홍막페렴(APP), Lawsonia, 글래서병 및 돼지 마이코플라스마성 폐렴(SEP) 등의 병원체에 대한 연제와 번식(reproduction), 식품안전성(food safety), 항생물질(antimicrobials), 영양(nutrition), 경제성(economics), 복지(welfare) 등의 양돈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연제 이외에 18개의 특강인 keynote speaker와 featured speaker의 연제가 총 25개의 session으로 나뉘어진 175개의 연제와 513개의 포스터 발표가 3일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특강 연사는 미국의 텃세가 좀 심한 것 같았는데 그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계의 양돈산업", "세계 양돈산업에서 질병의 변천사", "양돈업과 사회", 그리고 "북미 신종 돼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출현", "PRRS", "돼지 Circovirus", "FMD", "번식 효율증진을 위한 번식 생물학의 적용", "인공수정의 최신전략", "성장촉진 대체요법", "다 인자성 질병 대책을 위한 전략", "식육품질에 영향을 주는 약리물질", "돼지 복지문제에서의 수의사와 사회의 역할", "양돈 산업에서 환경문제 최소화 방안", "전세계 양돈 식육 위생", "미래 양돈 산업에서 유전체학의 역할", "돼지 콜레라"들이었다.

구두발표 주제를 세분해 보면 일반 연제로 PRRS가 3개 세션에서 25편이 발표되었으며 circovirus가 2개 세션에서 15편, swine influenza virus 5편, 흉막 폐렴 (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 5편, 번식(reproduction) 25편, 식품안전성(food safety) 9편, Lawsonia와 글래서병 (Haemophilus parasuis) 10편, 항생물질 (antimicrobials) 10편, 마이코플라스마성 폐렴 (M. hyopneumonia) 15편, 영양(nutrition) 5편, 생산성(production) 10편, 살모넬라 10편, 돈콜레라(classical swine fever; HC) 5편, 기타 세균성 질병 5편, 경제성 5편, 복지 관련 5편, 기타 주제로 25편이 발표되었다. 이들 내용은 두권의 두꺼운 초록집과 CD로 되어있다.

많은 구두 발표 중에서 영국의 Dr. Stan Done의 Foot and mouth disease를 주제로 발표가 기억에 남는다. 영국인 특유의 유머와 재치로 청중들을 웃음짓게 했던 그는 영국에서 구제역을 퇴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양 때문이라고 하면서 양은 구제역에 감염되면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균상태로 이동하면서 질병을 전파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양들의 발목을 자르면 어떻게



학회장에서 만난 지인들, 호주, 영국 교수들

되겠나?"는 자문에 그러면 "구름"이 된다고 말해 청중들에게 웃음을 주었다.

품위있는 학술 대회일수록 발표자들의 재치와 유머는 학회장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청중들은 발표자와 발표 내용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진지해진다. 발표자들 또한 단순한 자기자랑이나 말쑥씨가 아닌 훌륭한 내용으로 발표한다. 또한 발표후에 계속되는 문답시간에도 자신의 지식을 내세우거나 상대방을 깎아 내리려는 공격성의 질문이 아닌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창의적인 질문들을 겸손하게 하고 대답한다.

또한 발표장 옆 Hilton coliseum에서는 소비자과 환경문제, 양돈 질병, 생산성과 경영의 세가지 주제를 포함한 513개의 과제가 포스터 발표되었다. 500개가 넘는 주제는 대강의 내용만 보고 지나가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방대한 내용이었다. 나도 DNA chip을 이용한 돼지 장염 바이러스 진단에 관한 포스터를 발표하였는데 유전자 칩에 관한 논문으로 유일해서인지 일부 회원들의 관심 있는 질문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이번 학회에는 구두 발표자중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은 극소수였고 대부분이 미주와 유럽 사람들이었다. 앞으로 언어장벽을 넘어서 많은 한국인이 이런 국제 학회 발표장에서 자연스럽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염원해본다.

## 아이오와주와 미국 최초 수의과대학

아이오와주는 북미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주이다. 서쪽으로 미조리강과 동쪽으로 미시시피강을 끼고 있다.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보면 바둑판처럼 펼쳐지는 97,000개 이상의 농장, 매년 한 농장에서는 279명을 먹고 입힐 수 있는 식량과 섬유를 생산한다. 게다가 미국에서 제일가는 양돈산업, 옥수수생산 및 콩을 생산하는 주이다. 에임즈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랭크되어있는 조그마한 도시로 32개의 공원, 정원 문화, 예술전당등이 있다.

하와이에서 데모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반겨준 것은 "IPVS 참관단을 환영한다"는 현수막과 IPVS 자원봉사자였다. 그 사람들은 아이오아 수의과대학 정년퇴임 교수들로 매우 친절하게 우리 일행을 안내해 주었다. 공항을 나와 셔틀 버스를 타고 아이오와 대학에 도착하였는데 동행한 대학원생들의 반응이 우리들의 학교처럼 울타리로 둘러싸인 폐쇄된 공간이 아닌 야생 토끼와 사슴들이 뛰놀고 주변 마을과 경계도 없는 평화로운 곳이라는데 놀라는 것 같았다.

학회 첫날 그 지역 신문 1면에 에임즈를 세계 60여개국에서 2000여명의 수의사들이 학회 참석을 위해 방문하였다고 보도한 기사를 보았다. 인구 2만의 도시에 충분한 뉴스거리라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곳 학생들과 이야기하다 알게된 사실이지만 아이오아 대학에서 이 정도 규모의 학회는 큰 학회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대규모의 국제 학술대회가 연중 열린다는 사실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방문한 아이오와 주립대는 근 150년 전에 태동하여 지난 9월 신학기 입학생은 9개 대학 59개 학과에 27,823명이었더니 그 규모가 만만치 않다. 한편 지금으로부터 130년전 미국 최초로 1872년부터 시작된 아이오와 수의과대학은 동물의 건강, 보건, 위생에 중사, 연구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그 근방에 미 농무성 국립동물질병센터(NADC)와 국립 수의학 연구소 (NVSL)와 함께 세계적인 수의학 연구기관으로서 코너스톤을 이루고 있다.

아이오와 수의과 대학은 미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국립 수의과대학이다. 이 학교의 설립 이전에는 수의학을 사립기관에서 교육하였으나 1920년에 이러한 양성 기관은 없어졌으며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공중보건 및 낙농업을 위하여 국립학교에서 수의학이 발달하도록 지원하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아이오와주와 같이 낙농업이 발달된 지역에 최초로 국립 수의과 대학이 생기게 되었고 최초 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는 사실을 현관 로비의 크게 걸려있는 학생들의 사진첩을 통해 알수 있었다.

아이오와 수의과 대학은 1) Veterinary Microbiology and Preventive Medicine (VMPPM), 2) Veterinary Pathology (VP), 3) Veterinary Diagnostic and Productive Animal Medicine (VD-PAM), 4) Biomedical Sciences (BMS), 5) Veterinary Clinical Science (VCS)의 다섯 개의 department로 나뉘어져 체계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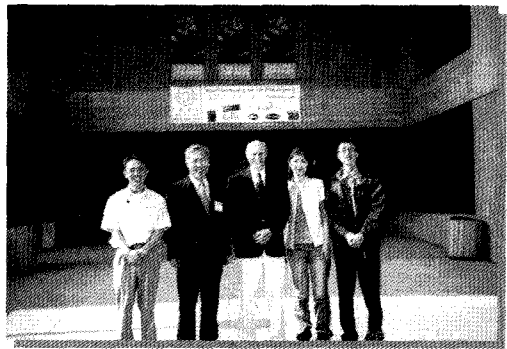
운영되고 있었다. 수의병리학 분야만 faculty와 staff의 수가 49명으로 테크니션까지 합하면 100명이 넘는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나를 동행한 대학원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를 안내해준 윤경진 교수가 속해있는 diagnostic laboratory에서는 기본적인 미생물 동정을 포함하여 혈청 검사 등 각종 검사를 하는 곳으로 말 그대로 몇 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테크니션들이 마치 기계처럼 일을 진행하고 있다. 한달 동안 처리하는 시료의 양만해도 500건이 훨씬 넘는다고 하였다. 그곳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User's Guide"였다. 이는 수의 진단실험실에 시료를 맡기려고 하는 수의사들을 위한 지침서로 기본적인 사용자의 정보를 비롯해서 병리학, 세균학, 혈청학, 분자생물학적 진단, 독물 진단을 위한 시료의 채취방법 및 용량이나 보관법, 보내는 방법 등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93 페이지에 상당한 분량으로 된 자료이다. ("User's Guide" <http://www.vetmed.iastate.edu/departments/vdpam/vdl/default.asp>) 한국에서는 병리학교실에 시료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수의사를 비롯하여 일반 약품회사 직원, 농장주 등이지만 이곳을 찾는 의뢰자들은 100% 수의사들 뿐 이라고 했다. 그만큼 전문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훨씬 정확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검실에서는 마침 돼지를 부검 중이었는데 수의사 1명과 본과 4학년 2명, 테크니션 2명이 함께 수행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수의사가 테크니션에게 원하는 장기를 채취하라고 이르면 수년의 경력이 있는 테크니션은 그 부위를 채취하고 나머지를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곳 학생들은 본과 4학년 이 되면 모든 과를 2주씩 돌며 실습하게 된다고 하였다.

동물병원은 크게 대동물과 소동물을 구분하여 따로 등록하여 진료를 받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대동물을 위한 진료실은 아주 커다란 공간에 보정틀과 수술실, 마취실, 입원실이 모두 분리되어 있었으며 마취시에 무거운 체중으로 생길 수 있는 부상을 막기 위한 시설도 잘 되어 있었다. 소동물 진료실은 대기실과 함께 사람의 소아과와 유사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또한 수술실은 밖에서 환측의 수술장면을 볼 수 있도록 창문이 나 있었으며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도 인상적이었다.

### 학장 Dr. Cheville과의 만남 그리고 학장선출과정

이번 학회의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우리네와 달리 양돈 질병 담당 교수인 텍수염을 헤밍웨이처럼 잘 기른 Dr. D. L. Hank Harris 교수가 IPVS의 대회장이었는데 그 곳 수의과대학 학장은 이번 학회에는 어떠한 직함도



수의과대학 학장 Dr. Cheville (가운데)과 우리 일행

없어 대회장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나와 약속을 하고서야 비로소 대회장에서 대학원생들과 함께 학장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Dr. Norman F. Cheville이다. 이제 65세가 넘었지만 위스칸신에서 석·박사를 한후 지난날엔 NADC 병리과장을 하면서 부루셀라, 요네병 등 소 질병 연구를 많이 했다. 수준 높은 저서 Cell pathology, Introduction to veterinary pathology, Ultrastructural pathology, Cytopathology of Viral disease 등의 저자이다. 미국 수의병리학회장, 수의 병리학회지 편집장을 역임 했고, 1990년도에는 미국 농무성의 우수 과학자 (distinguished scientist)로 선정되었다. 그 후 학교로 옮겨 병리학과장을 몇 년 하다가 2년전 부터 모교에서 학장직을 맡은 국제적인 평판을 받고 있는 병리학자다. 아이오와 수의대 사이트를 열면 그 사람 앞에만 distinguished professor라고 되어 있다. 그의 저서 중 병리학 총론에 해당하는 "Introduction to veterinary pathology"를 "수의 병리학 개론"이라는 국문서적으로 내가 번역을 했고 개인적으로 다정하기에 이번에 전남대와 서로 자매결연 체제를 맺자고 했다.

미국 수의과대학의 학장 임기는 최소 7년으로 총장이 광범위한 조사에 따른 최종 의견이 올라오면 임명하게 된다. 이 최종 의견은 교수 심사위원회, 대학 동창회 심사위원회등에서 자격, 조건 등의 기준을 만들고 유망한 사람을 유명 잡지에 공고해서 공채하게 된다. 이후 상기 위원회에서 확보된 사람들은 세미나, 인터뷰를 교수, 직원, 대학원생등 앞에서 하게 된다. 지망자들은 이런 저런 정책을 내걸어

자기의 포부를 제시하고 그 가운데 2명이 최종 선발되며 상기 심사위원회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며 부총장을 거쳐 총장과 상의하여 결정을 하게 된다. 당선된 학장은 회계의 책임, 교수임명, 연구 자금원 발굴, 주의회보고, 총장위원회 의사 결정권 등을 갖게 된다. 한편 교수사회에서 교수들 간의 자체 평가도 매년 교육, 사회봉사, 연구측면에서 교수들끼리 매년 하게 되는데 연구 업적도 어떤 잡지에 실었으며 그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업적을 평가하게 된다. 또한 대외협력, 양축가 상대 교육, 방문등의 내용까지도 해당 교수는 자기 실적이 된다. 학과장은 학과장 대로 본인과 일대일 면담을 통해 금년도 모든 업적을 통보하고 강의 분담, 연구실 운영, 대학원생 지도 계획 등 세부사항을 약속하게 되는 것이 미국 교수사회의 현주소이다.

그렇다면 국내 대학들의 총,학장 선거 풍토를 생각해 보자. 수의과대학과 같은 소규모 대학일수록 그 병폐는 심각하다. 학구적으로 실험실간에 협조하는 분위기도 사라지고 대학과 교수사회를 철저히 망가뜨려 파벌만 형성시키는 총, 학장 직접 선거 제도를 그들은 벌써 오랜 옛날 몇 십년 전에 버렸던 것이다.

### 총회 전경 그리고 차기 대회장소는?

총회는 차기 회장인 독일의 Dr. Henning Bossow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단막극 "돼지의 여행"을 상영하였으며 독일 대회의 등록비를 400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다. 또한 호주 전 회장과 국제간 장거리 원격 회의를

시도하는 동안 그 옆에 놓여진 필릭이는 장난감 비둘기를 돌려 우리를 웃기곤 하였다. 사무총장은 이번 대회 등록비 (일반참가자 : 275\$, 학생 175\$, 가족 175\$)의 납부자가 1850명 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회장 제도를 신설 하였으며 제 19차 대회인 2006년 학회장소는 지난 1월 31일 까지 희망하는 국가가 없어서 오는 10월 31일 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아 IPVS 위원회에서 12월 31일 까지 결정하기로 하였다. 현재로서는 멕시코, 브라질,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등이 그 가능성을 보였다.

일부 미네소타 수의과대학 그룹에서 후원의사를 밝히며 2006년 학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이 어떠한 제안을 해왔다고 주한수 교수는 내게 밝혔다.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도 이런 대회를 개최할만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었기에 주한수 교수등에 추진을 적극 권유 하였다. 그러나 현재 FMD와 돼지 콜레라 발생으로 혼란스러운 국내 사정과 4년 후의 일을 지금 결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일부 사람들의 의견으로 한국 개최전이 무산되어 버린 것이 못내 아쉽다.

### PMWS 소책자와 인공기

이번 학회에서 한국사람들이 뽑은 최고의 에피소드라면 단연 인공기 사건일 것이다. 이번 IPVS의 후원사인 M사는 개막전 특강과 함께 PMWS and PCV2 diseases 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통해 각국의 전문가를 소개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서울대 박봉균 교수를 크게 소개하고 국기를 우리나라 태극기 대신 인공기

로 잘못 인쇄한 해프닝이다. 해당사의 부스 담당자는 나를 보자마자 박봉균 교수의 친척 아니냐며 자신들의 큰 실수를 탓하고 매우 미안함을 말했다. 즉시 수정된 책자를 만들어 다시 박봉균 교수에게 사과편지와 함께 보내 겠노라고 약속을 하였다. 지금쯤 사람 좋은 박 교수도 이미 받았을 것이고 껄껄 웃었을 것이다. 남북간 이태올로기 그게 문제였고 이미 게임은 끝났는데, 어서 통일이 되어야 이런 일도 안 생기고, 편지 봉투 주소에도 그냥 KOREA라고만 쓸 날을 학수고대하자. 그 여자 직원에게 그런 실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한반도의 그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며 얼마 안 있으면 곧 통일될 것이라 말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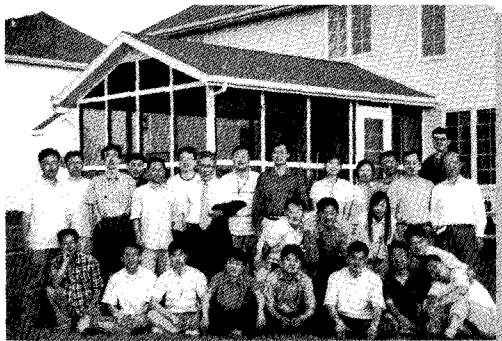
### IPVS와 월드컵 열기

미국사람들은 소문 그대로 축구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 미식 축구엔 열광적이면서 말이다. 한국에서 우리 대표팀이 폴란드와 시합을 하는 시간이 그곳 시간으로 아침 6시 30분이 었다. 우리 일행은 숙소와 그 주변의 TV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관람하지 못했고 한국으로 수시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대학원생 덕분에 거의 실시간으로 경기 결과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들의 숙소는 학회장소의 길 건너편에 있는 Maple hall이었는데 8층짜리 우람한 큰 학교 건물로써 세계 각지의 참가자들이 묵기에는 아침 식사도 좋고, 거리가 가까워 아주 편리한 장소였으나 TV시청은 여의치 않았다. 그 날 승리의 기쁨과 함께 유럽과 남미 국가들의 참가자들에게 축하를 받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땅에서 맞는

월드컵 첫승의 소식도 남다른 감회를 주었다. 우리 얼마나 바랬던 일 아닌가! 4강 신화, 전국 거리를 휩쓴 붉은 악마 부대의 장엄함. 나도 나중에 귀국해서는 대학원생들이 사준 "Be The Reds!" 붉은 셔츠를 입고 캠퍼스와 강당에서 소리 높여 응원했었다.

### 윤경진 교수댁 저녁 만찬

학회가 무르익을 무렵 음식이 맞지 않아 고생하는 한국사람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그러던 중 아이오와 수의대 윤경진 교수가 한국 사람들 약 20명 모두를 저녁에 초대한다는 연락을 받고 나의 일행 3명의 대학원생들도 기뻐했다. 내 대학원생들은 이미 하와이 3일 여행에서 스노클링도 하면서 아름다운 바닷속 열대어도 즐겼지만 김치에 쌀밥을 몹시 먹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젊은 내 대학원생들, 조호성, 강성귀, 김현진 학도들은 이국땅 문화에 재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이 대견스러웠다. 이들을 포함한 다른 일행들은 윤교수에게 아이오와 수의과대학을 소개받고 오는 길이어서 인지 수의과대학에서 받은 인상적인 느낌들을



윤경진 교수댁에서 즐거운 저녁 식사를마치고

대학원생들이 내게 이야기해주곤 하였다. 초대받은 일행들은 윤교수 내외의 환대와 맛있는 김치, 불고기 대접으로 매우 행복한 저녁식사도 하고 정원에서 족구시합도 즐겼다. 그런데, 학회의 송별파티장 식탁에서 내 옆자리에 앉았던 Dr. Eldon. K Uhlenhopp 부학장은 내게 자기 수의과대학의 K. J. Yoon 교수를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자원봉사자로 학회 내내 특히 포스터 발표장에서 참가자들을 친절하게 안내해 준 아주 포근하고 인상 좋은 교수였다. "윤 교수는 한국인 교수지만 연구 잘 하고 근면하며 성실한 과학자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벌써 정년 보장되는 부교수까지 쉽게 승진되었다" 라고.

### ISU 다이닝 팀과 송별 파티

이번 학회에서 내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순조롭게 진행된 학술대회 보다도 그 나머지 부분을 담당할 우리나라의 케이터링 팀에 해당되는 ISU 다이닝 팀이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 학생들로 구성된 이 팀은 학회 전 기간 동안의 식사와 지정된 송별파티를 포함한 모든 파티를 환상적으로 치루어 냈다. 거대한 연회장만 만드는 작업에서 설치된 구조물을 해체하는 작업까지 나름대로 업무 분담을 잘하여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작은 인형으로 꾸민 예쁜 식탁까지 꾸미는 세밀함까지 보여줘서 과연 수 많은 국제학술대회를 치른 팀들 답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일들 하나 하나가 작게는 학술대회와 학교의 이미지를, 크게는 그 나라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기에 다시 한번 칭찬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송별파티가 열리는 곳은 학회장과 조금 떨어진 아이오와 대학의 상징인 큰 시계탑이 있는 곳이었다. 셔틀버스로 2차 대전 당시 전사자 이름이 음각 되어있는 메모리얼 유니언 건물 앞쪽에 위치한 정원으로 이동하였다. 많은 토끼들이 뛰놀고 9월이면 반딧불이 날아 다니는 곳이다. 높은 시계종이 걸려있는 탑 아래서 파티가 시작되기전 간단한 리셉션이 진행되었다. 전 오레곤 대학 교수도 만났고 오랜만에 만난 매력적인 프랑스 여자하곤 오래 이야기 못해 서운했다. 송별파티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다. 대회장의 인사말등 간단한 공식행사 외에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끼리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그 가운데 기억남는 일은 네덜란드인들이 자신들의 테이블을 집단적으로 들고 노래를 부르며 건배를 외치는 이색적인 풍경을 보여 주어 많은 참가자들에게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 학회를 마치는 날의 소감

이번 학회에 아쉬운 한가지는 학회 최종일에 한국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처음 며칠 동안 45명도 넘는 한국인 참가자들은 발표에 경청하고 학회의 여러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긴 일정의 학회이기에 자신들의 스케줄과 맞지 않거나 자신의 관심밖에 있는 주제가 발표되는 날이라면 참석자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나 소수의 참가자만 남아서 진행되는 너무나 초라한 마지막날 학회장 분위기를 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 필승! 코리아를 외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분발이 더 요구된다.

우리나라도 대한수의사회, 한국양돈수의사회, 양돈협회, 수의과학 검역원, 서울대학이 주관이 되어 이런 큼지막한 국제 학술대회를 유치하는 날이 곧 도래하기를 기대해본다.